

대외경제실무영어어휘구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

김 성 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3페이지)

현시기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광범히 리용되고 기업활동과 금융통화거래들에서의 국제적성격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이 분야에서 수많은 새로운 단어들 생겨나 어휘구성이 보다 풍부화되어가고있다.

특히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한 대외경제활동분야에서 사회경제생활의 변화와 관련한 수많은 새 단어들 생겨나고있다.

대외경제실무영어어휘구성에서 새 단어들의 발생은 세계경제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1960년대초에는 항공수송업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수송분야와 관련한 많은 단어들 즉 **accelerator**, **airline**, **airport**, **air terminal** 등과 같이 비행기려행과 관련한 단어들 생겨났고 1980년대초에는 전자전기제품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central heating**, **vaccum cleaner**, **radio**, **television** 등과 같이 현대적인 가정용품과 실내장치들과 관련된 단어들 많이 생겨났다.

컴퓨터가 사회경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cyber-sickness**(오래동안 컴퓨터를 리용하거나 혹은 컴퓨터가 많은 방에 있는것으로 하여 생기는 병), **kerpal**(정상적으로 **e-mail**을 교환하는 사람), **screenager**(컴퓨터와 인터넷을 리용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사람) 등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한 단어들 많이 생기였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증권투자열이 심해지고 국제금융위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dead cat bounce**(주가가 폭락된 후 조금씩 오르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 **steal tax**(정부에 직접 무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게 소비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금을 가리키는 말)이 생겨났고 인터넷망에 의한 전자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e-cash**(실질적인 형태가 없고 어떤 특정한 나라에 속해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사는데 리용되는 화폐), **on-line auction**(웹브싸이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파는 행위 즉 직결망상경매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수많은 경제실무어휘들이 생겨나고있다.

최근시기 기업경영분야에서도 많은 새 단어들이 만들어지고있다.

benchmark는 같은 부류의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서 어떤 일정한 회사의 훌륭한 경영수준을 표준으로 리용하는것을 의미하며 **best practice**는 다른 회사들에서 표준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리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겨났다.

최근시기 영어어휘구성변화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새로 조성되는 단어들의 수가 비할바없이 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 영어가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새 기술의 리용분야에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언어로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리용되고있기때문이다.

대외경제실무영어의 어휘구성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차용어에 의하여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차용어는 다른 나라 언어가 영어에 흘러들어와 생기거나 영어의 지역적인 방언이나 변종들로부터 생겨나게 된다.

최근시기 영어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 언어들에서 많은 단어들이 들어오고있다.

Affermage는 프랑스어단어인데 그 의미는 농경지의 임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것이 영어에 들어와 개인기업이 손님들을 위해 봉사기관을 직접 건설하거나 개건하여 운영하는 특수경제시대개발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리용되고있다.

이밖에도 프랑스어에서 들어온어들로서 force-majeure(불가항력), entrepot(수화물 통과항, 보세창고), entrepreneur(기업가), 라틴어에서 들어온 어휘들로서 ad valorem tax(종가세), bona fibres holder(선의의 배집증권소유자) 등의 차용어들이 있다.

대외경제실무영어의 어휘구성에서는 다음으로 단어합성에 의한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있다.

단어합성법은 해당 언어안에 있는 단어조성적요소와 단어조성적수법을 리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합침법, 덧붙이법, 혼성어법, 품사바꿈법, 생략 및 준말에 의한 방법이 있다.

우선 합침법에 의하여 새 단어가 조성되고있다.

실례로 core business는 core와 business가 결합하여 생겨난 단어로서 핵심기업이란 뜻을 나타낸다.

한 노동자가 매일 리용하는 책상이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날동안 각이하게 리용하는 책상을 의미할 때에는 hotdesk를 쓰며 jobkeeper는 《직업을 찾는 사람》, walk-in은 《사전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덧붙이수법에 의하여 새 단어가 조성되고있다.

덧붙이수법에서 앞붙이 및 뒤붙이법은 현재 존재하는 단어들 즉 말뿌리의 뒤에 덧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실례로 adland는 광고 advertizing을 나타내는 ad와 뒤붙이 -land가 결합되어 생겨난 단어로서 광고업의 총체를 나타낸다.

앞붙이수법은 현재 존재하는 단어들 즉 말뿌리에 앞붙이를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앞붙이의 전형적인 실례인 cyber-는 computer를 나타내면서 café와 결합하여 cybercafé라는 새 단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있는 컴퓨터를 리용하는 카페와 같은 방》을 가리키는 말로 되고 forensics와 결합하여 cyber-forensics라고 하면 《큰 회사들이 컴퓨터망을 리용하여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micro-, super-, multi-와 같이 크기가 대단히 크거나 혹은 대단히 작은 의미를 나타내는 앞붙이가 붙여 새로운 단어가 조성되기도 한다.

microbrewery에서 micro-는 《극히 작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앞붙이이고 brewery는 《맥주양조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는 단어인데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여 《극히 적은 수량의 맥주를 생산하여 그 맥주를 봉사하는 식당을 가지고있는 작은 회사》를 의미하며 micromanage는 《극히 작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micro-와 《경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있는 manage가 서로 결합하여 《사업을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조직하고 조종해감으로써 사람들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만들어놓는다》를 의미한다.

microengineering에서 앞붙이 micro-는 공학을 나타내는 engineering과 결합하여 《아주 작은 기계나 구조를 설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덧붙이수법에서 앞붙이수법은 명백한 뜻을 표현하고 뒤붙이수법은 여러가지의 뜻을 나타낼수 있다는데 두 수법의 차이가 있다.

또한 품사바꿈의 수법에 의하여 새 단어가 조성되고있다.

품사바꿈의 수법은 어떤 단어에 어떤 형태를 첨가하거나 혹은 단어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품사로 전환되면서 새 단어가 만들어지는 수법이다. 실례로 to ramp 또는 to ramp something up은 명사로부터 동사로 전환된것으로서 《회사의 주권이 그것의 실지가치이상으로 된다는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준말과 생략의 수법에 의하여 새 단어가 조성되고있다.

준말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는 《우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는 기업전략작성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며 OTC(Over-the-Counter)는 《장외시장거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처럼 결합단어에서 매 단어의 첫 글자나 첫 소리마디를 따붙여 만든 말을 준말이라고 한다.

생략은 Co.(company), Ltd.(limited)와 같이 단어의 첫 소리마디를 따붙여 만드는 말이다.

최근에 생략과 준말이 계속 늘어나 젊은이들속에서 손전화로 통보문을 보낼 때에도 화면이 제한되어있는것과 관련하여 간단한 통보문락어들이 일반화되어 리용되고있다.

실례를 들어 《See you later》는 《CUL》로, 《LOL》은 《Lots of love》 혹은 《Laughing out loud》의 준말로 리용되고있다.

또한 혼성어의 수법에 의하여 새 단어가 조성되고있다.

혼성어는 두 단어가 하나로 뒤섞이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실례로 netizen은 인터넷을 리용하는 사람 특히 인터넷을 책임적으로 리용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internet를 나타내는 net와 citizen의 혼성어로 생겨난것이다.

imagineer는 imagination과 engineer의 혼성어로서 많은 착상을 하고 그 착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bancassurance는 banking과 insurance가 결합되어 생긴 혼성어로서 한 기관안에서 은행업과 보험업을 다같이 진행하는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외경제실무영어의 어휘구성에서는 다음으로 분리화에 의한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있다.

대외경제실무영어어휘에서 새 단어는 분리화방법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래 단어의 의미가 여러개로 갈라지면서 다의성을 띠게 된다.

새 단어는 반드시 새롭게 생겨나는 단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현존

단어의 기본의미외에도 새로운 의미가 보충적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실례로 **campus**는 본래 《어떤 기관의 구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었는데 현대대외경제실무영어에서는 큰 회사에 속해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가리키는 말로 분리되어 쓰인다.

factor는 동사로서 《...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다》의 의미로 쓰이던것이 경제실무영어들에 들어와 《채권매입을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있고 **factoring**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을 위해 은행을 대신하여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단기채권거래업무》라는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있다.

forfeit는 《재산을 몰수하다》의 의미로 쓰이던것이 대외경제실무영어들에 들어와 **forfeiting**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을 위해 은행을 대신하여 결제업무를 수행해주는 중장기채권거래》라는 의미로 분리되어 쓰이고있다.

우리는 대외경제실무분야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정확하고 생동한 어휘표현들을 탐구리용하여 언어의 표현적효과성을 보다 높여나감으로써 대외경제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